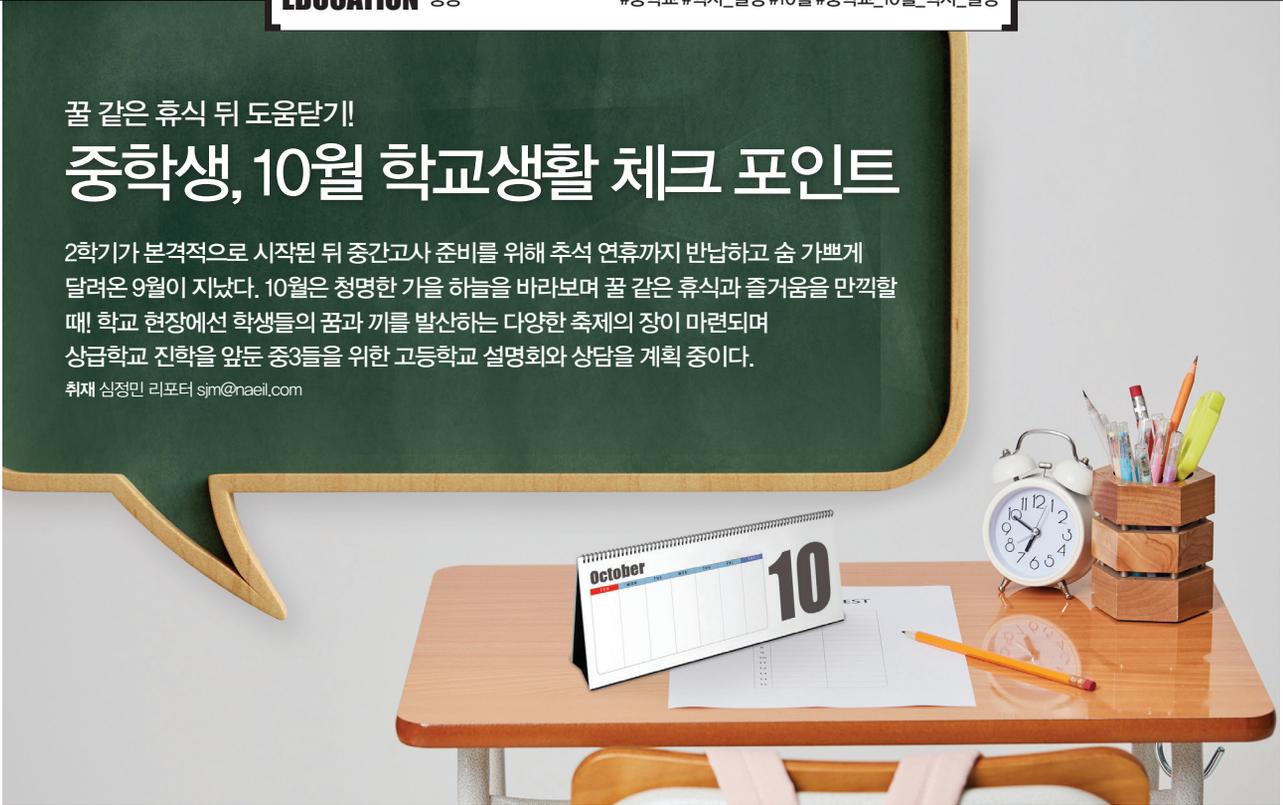


꿀 같은 휴식 뒤 도움달기!

# 중학생, 10월 학교생활 체크 포인트

2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 추석 연휴까지 반납하고 숨 가쁘게 달려온 9월이 지났다. 10월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꿀 같은 휴식과 즐거움을 만끽할 때!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산하는 다양한 축제의 장이 마련되며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중3들을 위한 고등학교 설명회와 상담을 계획 중이다.

취재 심정민 리포터 sjm@naeil.com



## Week 01 10.3~9

□ **잡 페스티벌** 중1을 대상으로 직업과 관련한 체험 부스를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는 축제를 연다.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맛보고 깊게 탐구할 수 있다.

□ **학급 특색 활동** 교과별로 담당 교사의 주도하에 교과서에서 벗어나 흥미 위주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다. <수학> 교과에서 일상의 도구를 활용해 각의 크기를 재고 또 <영어>교과에선 주사위를 굴려 단어를 확인하거나 단어 카드 빨리 짚기와 같은 게임형 수업으로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.

□ **교과 융합 주제별 체험학습** 지필고사를 끝낸 뒤 진행된다. 주로 '체육+예술'이 융합된 체험학습이다. 서울 인사동 쌈지길에서 전통 수공예품을 감상하고 특정 장소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런닝맨 대결을 하는 식이다. 학년별로 테마 활동도 다양하다.

## Week 02 10.10~16

□ **고교 진학 상담** 중3에게 10월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분수령이 되는 시기다.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 유형을 결정하고 지금까지의 학습 상황을 분석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때다. 담임 교사와 진학을 원하는 고등학교 3~4개를 선정한다.

□ **고등학교 입학 설명회** 지역마다 다르지만, 10월부터 12월까지 거주지 관내 고등학교에선 중3을 대상으로 신입생 모집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. 주로 해당 고등학교에서 열리지만, 중학교로 찾아가는 설명회도 쓰는 추세다.

□ **학부모 상담** 고교 입학 상담 주간에서 실시한 학생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학부모 상담이 진행된다. 이때 후기고 원서 초안을 작성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자녀가 가고 싶은 학교를 결정해 구체적으로 상담해야 한다.

## Week 03 10.17~23

□ **체육대회** 상당수 중학교에선 이 시기에 '미니올림픽' '스포츠 한마당' '스포츠 엑스포' 등의 제목으로 체육대회를 연다. 체육수업 중 계주 대표 주자를 미리 선발하고 학급대항 예선대회가 치러지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결석은 하지 않는 게 좋다.

□ **시 낭송 대회**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<국어> 수업의 연장선상으로 시 낭송 대회를 열기도 한다. 감성을 키우고 아름다운 시어를 통해 문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.

□ **교육과정 발표회** 학년이나 학급별 교육과정과 우수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 전시하는 행사다. 주로 자유학기제나 학년제를 경험한 학년이 수업 중 완성한 작품을 교내에 전시하는 경우가 많다. 학기말을 앞두고 배움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.

## Week 04 10.24~31

□ **애플데이** 10월 24일은 애플데이다. 몇 해 전 '학교폭력 대책 국민협의회'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가 학생과 교사,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화해와 용서의 운동을 벌이자는 취지로 만든 날이다.

□ **독서표현한마당** 10월엔 학교 단위로 다양한 독후감 대회가 열린다. 개천절과 한글날이 있는 달인 만큼 '한글사랑글짓기대회'나 '한글 관련 독후감 대회' '법과 시민을 주제로 한 독후감 대회' 등 역사 또는 한글은 주제로 한 대회가 많이 열린다.

□ **인권 글짓기 대회** 인권의 날은 12월 10일이지만, 상당수 중학교에선 10월에 인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글짓기 대회를 연다. 인권이란 거창한 게 아니다. 친구에 대한 배려, 따돌림 없는 학교, 학생을 존중하는 교사가 주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라. @